

“내년 더 어렵다” ... 전방위 內需 띄우기

정부가 주요 업종별로 수입을 줄이고 내수를 띄우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내년 수출 성장률이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10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수입을 줄여서라도 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불안 ... 수출 환경 본격 악화 정부, 수입 줄여서라도 수지 개선 안간힘 車·가전산업 내수 활성화 실물경기 대응

◇수출 둔화, 내년에 본격화=지경부가 업종별로 제시한 수출입 전망을 보면 일반기계는 내년 수출 증가율은 7.5%로 올해 전망치 30.0%에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은 올해 28.3%의 높은 수출 증가율이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11.3%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경부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도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와 주

■8대 업종별 내년 수출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기계	30.764	40.000	43.000
철강	23.000	29.500	32.800
석유화학	28.800	34.500	36.000
섬유화학	13.446	13.790	14.010
조선	27.800	43.000	53.000
반도체	39.045	37.253	41.750
디스플레이	35.321	40.036	45.654
가전·정보	27.241	26.068	25.854
합계	225.417	264.147	292.068
증가율		17.1%	10.5%

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요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TV와 컴퓨터 등 가전·정보기기 업종은 올해 수출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0.8%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기반으로 내년도 올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율은 올해의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했다.

◇내수 띄우기 위해 수도권 규제 풀다=지경부는 실물경기 위기대응을 위해 업종별 대책반을 꾸려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일반기계반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섬유산업반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

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제시됐고 가전산업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입 줄여서라도 무역수지 개선=부품소재 업종은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액 5천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품목은 대일 적자(262억달러)의 42.5%에 이르고 대일 수입(480억달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부품소재 대일수입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식 ‘검값’ 보다 싸다

증시 추락 속 100원 이하 초저가주 속출

증시가 최근 끝모르게 추락하면서 100원 이하의 초저가주들이 등장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최저가 종목은 코스피시장의 남한제지, 코스닥시장의 디에스피로 나타났다. 남한제지의 24일 종가는 85원, 디에스피는 65원이다. 주식 3~5주를 팔아야 겨우 겸 한 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주가가 너무 낮다 보니 10월만 올라도 삼한가, 10월만 내리면 하한가로 기록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코스닥시장에는 이외에도 ST&I(70원), 큐로컴(75원), 팬텀엔터그룹(80원), 이노비츠(80원), 네오솔라(85원), 온누리에어(90원), 타이씨(90원), 씨엔씨테크(95원), 팍스메뉴(95원), H1바이오(95원) 등 10종목의 주가가 100원 미만이다. 스타맥스, 지이엔에프, 스키포스의 주가는 100원이다.

이들 종목을 포함해 500원 미만 주식은 코스피시장 58개, 코스닥시장 189개로 집계됐다. 247개 종목의 주가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 한개값보다 못한 것이다. /연합뉴스

환매조건부 매입 미분양 주택

일반인에 팔면 분양가 이하로

대한주택보증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다시 일반 계약자에게 팔 때 반드시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또 건설사가 주택보증에 관 미분양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회사 부채상환 등으로 쓸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만 사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같은 내용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29일 확정하고 30일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환매 조건부로 재매입한 아파트를 일반인에 매각할 때 집값이 올랐더라도 분양가 이하에만 팔도록 가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택보증은 사준 미분양 아파트의 대금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정작 미분양된 사업지는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주택보증은 우선 이달 말 3천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약 1천 5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시범 매입하고, 한도액인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한 차례씩 매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점유율 50% 육박

검역 재개후 3개월만에 ... 호주산과 시장 양분

지난 6월 26일 검역이 재개된 이후 불과 3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호주산과 수입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모두 4천398만달러어치, 7천 300의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 이는 전체 쇠고기 수입액(1억313만달러)과 물량(2만253t) 가운데 각각 43%, 35%의 비중이다. 8월의 1천945만달러, 2천984t과 비교해 한달 사이 금액과 양이 각각 126%, 136%나 늘었다.

이에 비해 호주산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지난달 호주산 쇠고기는 4천947만달러어치, 1만501t 수입액 금액 기준 48%, 물량 기준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가짜 양주 ‘꼼짝마’

내달 무선인식기술 도입 가짜 술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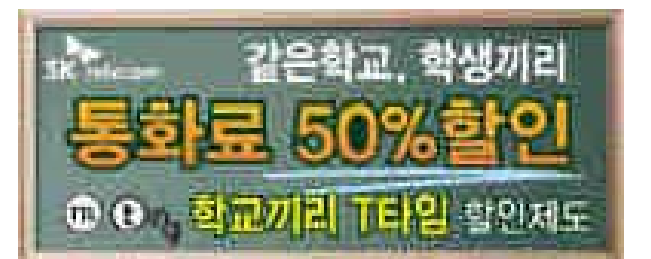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짜 양주가 앞으로는 시중에 발붙이기 어려워진다.

최첨단 기술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이용해 양주의 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가짜 양주를 식별하고 유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제가 한층 촘촘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6일 고가제품인 양주부터 주류 유통관리용 RFID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달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면 모든 양주의 마개에 국세청이 관리하는 RFID 태그가 출고될 때부터 붙여있기 때문에 세정 당국이 주류의 유통경로 등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태그가 술병 마개를 열 때 자연스럽게 파손되도록 만들 방침이다. 정품 양주병의 태그가 가짜 양주병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학생 김치요리 경연대회’ ‘2008 김치사랑 축제’의 일환으로 26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학생 김치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 요리사들이 김치를 응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 “4분기는 캄캄한 터널 속”

금융 위기 실물 경제로 번져 전자·자동차·건설 업종 불황 예고

전자와 자동차, 건설 등 주요업종의 3분기 실적이 그러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4분기 본격적인 불황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분기 실적은 금융 위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기 전 호황의 마지막 국면을 반영한 성적표고 실제 캄캄한 터널은 이제 시작이라는 불안감이 산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7조원으로 예정했던 메모리 부문 투자를 수천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전망에 대

한 우려는 감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분사 기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6.0% 하락한 1조234억원에 그쳤다.

포스코도 비슷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상반기 철강 시황이 호황을 보던 터에 3분기에 매출 8조8천130억원, 영업이익 1조9천840억원을 기록해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포스코는 그러나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철강 경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산업수요 감소 현상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소비심리가 위

축되는 등 사업 여건이 악화하자 연초에 세워놓은 판매목표를 311만대에서 최근 302만대로 낮췄다.

그러나 현대차는 일단 중·소형차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6.5%가량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수출액을 분기 평균치 이상인 58억 달러로 잡았다.

해운경기 침체와 맞물려 조정을 겪는 조선업계도 불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계열 조선사를 제외한 3분기 선박 수주량이 20여척으로, 작년 동기 수주량인 4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두 달간 선박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RN	[SK텔레콤] 본부장님 비서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29	062-529-2671
에스엠텍	제품 출하 모델 수량 확인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9	011-9047-5532
씨에이치솔루션	(주5일/고정급152만) SK텔레콤 CRM 승장리센터 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0/30	02-456-9799
현대블링센터	블링장 관리와 고객서비스 업무 납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223-1173
거동건설	건축기사 경력 대리급 사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30	062-364-0900
엘리시아	[영업부 홈/조리부]정규직 사원 및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385-3000
대성하이텍	자동제어 판넬 제작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30	062-954-1132
인컴이즈광주지사	경리직 정규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10/31	062-366-3809
내오개발	기술부(관리직)/생산부(생산직) 신입/경력사원 공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361-2610
제이에스텔레콤	영업 및 매장관리/전산관리 및 매장관리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234-2100
해피버스	[광주/전남]포토플래너/포토샵/상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71-0898
공간창조	현장관리담당자(CAD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264-0488
대우기전	전기자동차에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31	062-573-505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은행, 원화 유동성 부족 ... CD·은행채 금리 올러

대출금리 일제히 상승 서민가계 이자 ‘눈덩이’

은행권 대출금리가 전방위로 인상되면서 서민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화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양도성에 금융(CD)과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의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대출금리 전방위 인상 ... 서민가계 비용=대출자들이 금리 급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형과 고정금리형,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는 6.92~8.42%로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2004년 금리체계를 변경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변동금리도 이번 주 초 6.96~8.26%와 7.06~8.36%로 지난 주 초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7.28~8.58%로 0.08%포인트 올랐으며 기업은행은 7.11~8.41%로 최저금리가 0.06%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주 초 8.89~9.99%로 지난주 초보다 0.12%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기 고정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 외환은행의 고정금리도 8.69~9.39%로 0.26%포인트 급등했다.

씨티은행이 이달 들어 신용대출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등 대출금리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일 2년제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를 11.7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20일에도 11.80%로 0.10%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양도성에 금융(CD)과 금융채 등 시장성 수신품금이 급등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CD금리는 지난 10일 이후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4일 현재 6.1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한달간 상승폭은 0.39%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예금금리 7%대 ... 11조원 증가는 은행들은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품금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창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금에 매달리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7%대로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6개 주요은행은 지난 23일 기준 시중자금 11조1천 615억원을 뺏아들었다. 최근 안전성 면에서 관심을 받는 우체국금융과 농협을 합치면 예금 증가액은 13조4천146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로또 1등 1명 ... 102억 독식

나눔로또는 25일 제308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명으로 102억3천287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6개 당첨 번호는 14, 15, 17, 19, 37, 45번이다. 6개 당첨 번호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40번을 맞힌 2등은

27명으로 각각 6천317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978명(당첨금 각 174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5만3천749명(당첨금 각 6만3천461원)으로 집계됐다.

3개 숫자를 맞춰 고정 당첨금 5천 원을 받는 5등은 92만2천984명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0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4 15 17 19 37 45	40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0,232,872,80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3,165,882
3	5개 숫자 일치	1,743,844
4	4개 숫자 일치	63,461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31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617407
2	1억	2조 772753
3	1천만	3조 818010
4	1백만	각조 95211
5	50만	각조 5999
		각조 97
6	2천	각조 54
		각조 08
		각조 2
7	1천	각조 0
		각조 1